

## 2-26. 조선왕조실록의 황충(蝗蟲) 기록에 대한 분류학적 검토

윤 일\*, 문태영

고신대학교 법/보전생물학연구소

조선왕조실록에서 황충(蝗蟲)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나 고려사 보다 구체적으로 발생한 지역, 시기, 형태까지 언급하여 문화곤충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조선시대에 황충은 국가 수준에서 관여해야 할 정도로 영향이 컸으므로 심각한 자연재해의 하나였다. 그러나 황충으로 언급된 기록중에는 메뚜기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시 황충의 개념이 메뚜기목 뿐만 아니라 대발생하는 다른 곤충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당시의 분류학적인 관점에 대해 재고하고 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황충에는 명나방이나 멸구나 또는 바구미에 근접한 특성이 언급된 곤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곤충들에 대한 당시의 인식은 추후 연구할 가치가 있는 과제로 도출되었다.